

## 카르펜티에르의 소설에 나타난 정체성 담론 변화과정\*

김용호(울산대 카리브 해 연구센터)\*\*

- I. 서론
- II. 라틴아메리카 정체성 담론의 형성과정과 마술적 리얼리즘
- III. 카르펜티에르의 소설에 나타난 정체성 담론의 변화과정: 경이로운 현실에서 바로크적 혼종성으로
  - III.1. 『지상의 왕국』: 아이티의 잃어버린 역사의 복원
  - III.2. 『잃어버린 발자취』: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철학 여행
  - III.3. 『계몽의 세기』: 실패한 프랑스 혁명의 그림자
- IV. 결론

### I. 서론

인종과 문명에는 서열이 있으며, 우리는 우월한 **인종과 문명**에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우월성이 권리도 주지만 거기에 따른 엄격한 의무도 준다는 사실을 원칙과 출발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토착민들의 정복을 합법화**해 주는 것은 곧 우리의 우월성 -단순히 기계적이고 경제적이며 군사적인 우월성뿐만 아니라 도덕적 우월성- 에 대한 **확신**이다(에드워드 사이드 2001, 67, 재인용).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KRF 2003-072-BM2009)

\*\* Yong-Ho Kim(University of Ulsan, The Center for Caribbean Studies, joanquinkim@hanmail.net), "El Proceso del cambio del discurso de la identidad en la novela carpenteriana".

백인이 내 아비를 죽였다네  
 내 아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으므로  
 백인이 내 어미를 겁탈했다네  
 내 어민 아름다운 여자였으므로  
 백인이 작열하는 태양의 한 길가에서  
 내 형을 매질했다네  
 내 형은 강했으므로

그리고

백인은 내게 다가왔다네 피묻은 손으로  
 내 까만 얼굴에 경멸의 침을 내뿜으며  
 폭군의 목소리로 말했다네.

“이봐, 꼬마. 세숫대야, 수건, 물이라고”(프란츠 파농 2003, 171, 재인용).

한 지역의 문화담론에 대한 연구는 누구의 시각으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접근했는지를 밝히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텍스트 해독 작업이며, 이를 통해 특정 담론의 일반화 과정에서 강조한 요소와 배제된 요소를 밝히는 작업이다. 전술한 두 개의 인용문에서 보여지듯이 인종적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정복을 합리화시키려는 식민주의자들과 피해의식에 몸부림치는 토착인들 사이에는 심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이 지역에 대한 객관적 이해는 물론이려니와, 21세기의 세계화 시대가 요구하는 다원적 문화관과 창의적 사고의 핵심마저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일견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담론들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분석에서 널리 사용되는 <혼합 문화>(hybrid culture)와 <혼종 문화>(heterogeneous culture)라는 개념들 사이에 보이는 차이가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혼합 문화는 두 개 이상의 상이한 문화들의 조화로운 상호작용과 그 종합을 강조하는 것으로, 일견 가치 중립적인 개념처럼 보이지만, 기실은 헤게모니의 정치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에, 혼종 문화는 전통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토착문화와 외래문화 등 여러 이질적인 요소들의 중첩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문화의 통일성보다는 다양성에 무게를 두는 민주적인 기획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새로운 사상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점유하는 변화의 시

기에 담론이란 필연적으로 이전의 구조를 파괴하고 새로운 힘에 방향과 의미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에 완벽한 담론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근자엔 혼종 문화론 조차 헤게모니 집단과 하위주체간에 존재하는 대립을 무화 시키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이에 필자는 이렇듯 다양한 문화담론들을 누구의 시각에서 조망하는 것이 바른 길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들의 담론들을 고찰해 보았다.

카리브해 지역의 담론들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혁명적이 데올로기적 성격이다.” 그리고 이런 혁명적 성격은 “식민정책의 형태로서의 유럽의 전통적인 형식과 가치를 거부하는 경향에서 나타난다”(Davis 1996, 21). 이에 필자는 카리브해 제 2의 혁명기였던 1940년대에서 60년대까지 유럽의 전통적인 형식과 테마를 거부하고 그들만의 정체성을 추구하려고 노력했던 작가들의 정체성 담론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그중 대표적인 작가인 카르펜티에르의 작품들을 새롭게 조망해 볼 것이다.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는 카르펜티에르는 시대의 요구에 항상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작가로 쿠바라는 한 국가만의 정체성이 아닌 카리브해, 더 나아가 전체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을 모색했던 작가로 유명하다. 그에 의하면 카리브해 문화는 유럽적인 것과 아프리카적인 것 그리고 토착적인 요소가 서로 접촉해 새로운 것을 형성해 가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문화이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라틴아메리카의 본질을 바로크 정신의 총화로 파악한 「바로크와 경이로운 현실」이라는 논문에 잘 드러나 있는데, 이는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혼종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대표적인 것이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라틴아메리카 문화를 공존·공생의 혼종 문화로 파악한 것은 아니다. 마술적 리얼리즘의 유일한 선언문으로 간주되는 『지상의 왕국』(*El reino de este mundo*) 서문과 「바로크와 경이로운 현실」(*Lo barroco y lo real maravilloso*)을 비교해 보더라도 그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에 필자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분석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 정체성에 대한 그의 인식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 그 과정들을 살펴볼 것이다.

왜 라틴아메리카가 **선택받은 바로크 땅**일까요? 공생, 혼혈이 바로 크주의를 낳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카 바로크주의의 성장 요인은 크리오요 정신, 크리오요의 의미, 아메리카인이라는 의식입니다. (...)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의 자식이든 아프리카 흑인의 자식이든 인디오의 자식이든 상관없이 모두 라틴아메리카인 이라고 느낍니다. 다른 것이라는 의식, 새로운 것이라는 의식, 더불어 산다는 의식 그리고 크리오요라는 의식과 더불어 라틴아메리카 바로크는 성장합니다(카르펜티에르 1990, 182-183).

## II. 라틴아메리카 정체성 담론의 형성과정과 미술적 리얼리즘

어떻게 내가 비유럽적인 뿌리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만일 이것이 오늘날 카리브해 작가들이 그들의 글에서 우리가 비유럽적이고 비세계 스피어 뿌리와 비베토벤적인 음악의 과거로부터 영향 받은 것을 강조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나는 동의한다. 그러나 뿌리가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는 식으로 자리 매겨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둘 모두를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읽고 쓰는 능력과 심미적 과거가 서구 유럽 문명에 뿌리를 두고 있는 민족들이다(에드워드 사이드 2001, 431, 재인용).

1898년 미-서 전쟁, 1903년 파나마 침공, 1915년 아이티 점령, 1916년 니카라과 점령 등 카리브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제국주의적 대외팽창은 미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고, 이는 반제국주의 범 라틴아메리카 민족주의 담론이 등장하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한다. 1898년 사건은 구 식민지 종주국 스페인을 치욕과 불명예의 수렁으로 떨어뜨린 반면에, 신생국인 미국에게는 세계지배를 향한 항해의 서막을 의미했다. 이는 또한 앵글로색슨족의 우월성과 라틴아메리카 혼혈사회의 열등성이라는 인종이론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회의주의와 패배주의가 팽배하던 상황 속에서 강력한 정신적 반동이 일어난다. 19세기 내내 이베리아의 유산을 부인해왔던 라틴아메리카 대륙이 미국의 가공할 힘과 물질주의에 맞설 힘으로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업적의 위대함에 대한 정신적

자각을 촉구하게 된 것이다. 엔리케 로도(José Enrique Rodó)의 『아리엘』(*Ariel*, 1900)로 대표되는 이러한 유형의 민족주의 담론은 그리스-로마-스페인으로 이어진 정신문화 전통을 복원하여 미국의 물질문화에 맞서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본질적으로 과거 회귀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유럽의 정신적 전통과 미국의 물질적 번영의 조화 속에서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미래를 개척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선 진정한 정체성의 추구가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 담론은 이후 백인 신화를 부정하고 마침내 메스티소나 원주민 또는 흑인 중심의 토착주의 담론을 태동시키는 산과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담론은 쿠바 독립 운동의 영웅 마르티(José Martí)에 의해 이미 미서 전쟁 전부터 시작되었다. <문명과 야만>이라는 식민주의적 이분법적 틀로 라틴아메리카 현실을 재단했던 사르미엔토의 현실인식과는 달리, 마르티는 복수인종사회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했으며, 신대륙발견 이전 토착문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우리의 아메리카』(*Nuestra América*, 1891)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허약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지식인 지배계층과 민중 사이의 지나친 간극이 국가를 허약하게 만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주민들과 흑인들을 국가에 통합시켜야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중들도 지식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로도와 마르티 간의 이러한 라틴아메리카 논쟁을 <제국주의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문화는 그 자체의 과거를 어떻게 상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한다. 그는 로도의 『아리엘』처럼 셰익스피어의 작품 『폭풍우』(*The Tempest*)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비교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선택은 아리엘처럼 자발적으로 프로스페로의 종이 되는 것이다. 아리엘은 프로스페로가 시킨 일을 정중하게 행하며, 자유를 획득한 뒤에도 프로스페로와의 협력에서 아무런 동요를 느끼지 않는 일종의 부르주아 토착민으로 되돌아온다. 두 번째는 그 자신의 혼혈적인 과거를 인식하고 수용하

지만, 미래의 발전에 대해서는 장애를 받지 않는 짐승 같은 사내 칼리반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자신의 본질적인 식민지 이전의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현재의 예속 상태와 신체적인 결함을 떨쳐 버리는 칼리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2001, 377). 예속상태를 탈피한 칼리반이 <흑인성>, <원주민 중심주의> 등의 개념을 창출했던 토착적이며 급진적인 민족주의의 배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들에 1910년 발생한 멕시코 혁명이 가세한다. 멕시코 혁명은 20세기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하나로, 정치·경제·사회제도의 변화를 꿈꾸는 일반 민중과 농민들 즉 예속상태를 벗어나려는 칼리반들이 일으킨 투쟁이었다. 그것은 뚜렷한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차차 농민혁명, 사회혁명으로 전화하여 경제·사회·문화적 변혁에 대한 의식을 획득함으로써 전 라틴아메리카 대륙에 자신들의 진정한 정체성과 문화의 운명에 관해 탐구하도록 만든 또 다른 시발점으로 작용한다. 제국주의는 지배의 관계이자 확장 이데올로기이며,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항상 신분상의 위계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는 사회이다. 토착민들 입장에서 식민지적 노예 상태의 역사는 외부인들에게 지역성을 상실 당하고 토지를 강탈당한 데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제국주의 국가로부터 독립을 획득한 뒤에도 이러한 신분상의 차별은 철폐되지 않고 있었으며 토지의 반환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멕시코 혁명은 토착민들이 자신들에게 강요된 식민 통치의 잔재와 강요된 침묵을 더 이상 무관심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저항의 시작을 의미했다. 국수주의적 부르주아지에 한정된 민족주의적 독립이 아니라 해방이 새로운 담론으로 떠오른 것이다.

근대 국가적 독립이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항해서 실제로 싸우는 <일차적인 저항>이라면, 독립 이후에도 지속된 식민지 체제의 모든 억압에 저항하여 잃어버린 공동체 사회를 재구성하려고 노력하는 멕시코 혁명의 이상은 새로운 저항, 즉 이데올로기적 저항의 시초가

되었다. 식민주의의 굴욕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민족주의의 교훈, 즉 모든 민족을 광범위하게 통일시킬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토대를 찾아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페루의 마리아테기(José Carlos Mariátegui), 쿠바의 니콜라스 기옌(Nicolás Guillén) 등이 마침내 백인신화를 부정하고 원주민이나 물라토 혹은 메스티소 중심의 토착주의 담론을 주창하기에 이르면서 정체성 담론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독립국가 형성기의 국가주의는 공통적인 역사와 공통적인 언어, 종교를 소유한 민족들이 외부의 지배적인 제국에 대항하여 저항할 수 있는 연대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국가의 부르주아지와 전문화된 엘리트들은 오래된 식민지 구조를 새로운 용어로 복제한 또 다른 착취세력으로 변모해 갔고, 토착민들은 과거에 억압되었던 것들을 재발견하고 복구하는 형태로 이들에 저항했다. 저항문화의 첫 번째 작업의 하나는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고, 개명하고, 다시 거주하는 것이다. 탈식민화된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민족주의적인 저항과 더불어 토속 언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는데, 토속언어는 그들에게 항상 마술적인 영감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라틴아메리카 최고의 문학적 유산인 마술적 리얼리즘을 형성하는 기반 가운데 일부가 되었다. 카리브해의 작가들은 모두다 가슴속에 아픈 과거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 과거는 때로는 굴욕적인 상처의 자국으로서, 또 때로는 다른 관습에 대한 선동으로서, 또 때로는 탈식민지 미래를 꿈꾸며 과거를 재수정하는 비전 등으로 다양하게 재해석되며 표현되었다.

우리는 마술적 리얼리스트들의 작품 속에서 직선적인 내러티브 즉 쉽게 복원되는 독단적인 미메시스를 거부하는 새로운 이야기 방식을 접하는데, 이는 역사란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촘촘하게 뒤얽힌 것이라는 그들의 인식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새롭게 이야기하기> 방식은 오랜 기간 교육받았던 식민지 내러티브 속에 함축되어 있는 가설·태도·가치를 극복하고,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과 역사의 존재를 주장하는 방법이다. 식민지 내러티브의 가장 중요

한 가설은 <근대성> 이론이다. 근대는 진보라는 일직선상의 시간 축 위에서 발현되며 과거와의 대비를 통해 스스로를 나타낸다. 그래서 진보의 내포의미엔 발전의 의미가 포함되며, 발전의 개념은 효율의 문제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모두 직선적인 시간관념 즉 진화적 시간관념을 암시한다. 이는 현대사회의 보편적 이데올로기로 오늘날의 세계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는 토대가 되는 한편, 시간의 축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의 미래임을 은근히 암시함으로써 양자가 사실상 중심과 주변, 지배와 종속의 불평등 관계에 있음을 은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형적인 사회적 다윈주의의 표본이다. 하지만 이런 발전주의의 문제점은 서구의 성공한 발전 모델을 보편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그 모델들을 모든 지역에 적용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서구의 성공적인 발전이 사실은 식민지에 의존해 왔음을 은폐하고, 또한 그 발전이 동시에 카리브해 지역 및 그 지역 민중들의 발전의 권리와, 심지어 생존권의 박탈을 의미했다는 사실도 은폐하는 것이다.

근대적 형태의 제국주의의 가장 큰 특징 중의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이 일종의 교육적인 운동이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제국주의는 아주 의식적으로 근대화·발전·교육·문명화를 장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은 유럽역사의 장려로 이어졌고, 이는 토착민 역사의 가치저하와 왜곡으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역사의 복원은 뿌리깊은 식민주의 담론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였기에, 마술적 리얼리즘은 식민주의담론에 저항하는 성격을 갖게 된다.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에 의하면 “식민주의는 단순히 한 민족을 잡아 두고 토착민의 두뇌에서 모든 형식과 내용을 비워 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일종의 왜곡된 논리에 의해 식민주의는 그 민족의 과거로 돌아가 그것을 곱해하고 손상시키고 파괴해 버린다” (에드워드 사이드 2001, 414, 재인용). 마술적 리얼리즘은 이렇게 빼앗기고 왜곡된 역사를 복원시키는 담론이었다. 제국의 수준 높은 정치·경제·문화는 항상 식민지인들에게 의존하고 있었지만, 인종·문화·존재론적인 면에서 항상 부차적인 지위에 머물러 있던 “역사

없는 민중들”에게 역사를 되찾아 준 것이다.

이렇듯 식민주의 담론에 저항하는 성격을 갖는 마술적 리얼리즘에는 세 가지 커다란 주제가 관통한다. 첫째는 라틴아메리카 공동체에 대한 역사를 전체적이고, 종합적이며, 일관성 있게 보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민족문화는 공동의 기억을 조작하고 지탱하며 동일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갖는데, 마술적 리얼리스트들은 그들의 삶과 영웅들을 복원함으로써 자신들의 고유한 풍경과 역사를 되살려내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 역사 면면에 흐르는 저항의 전통을 표현함으로써 그들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저항이 제국주의에 대한 단순한 반동이 결코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생성하는 대안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유럽과 서구의 담론에 개입하고, 그것과 혼합하며 그것을 변형시키고, 주변부화되었거나 억압되었거나 망각되었던 역사를 알게 하려는 노력은 마술적 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주제이다. 셋째는 인간의 공동 사회와 해방에 대한 좀더 통합적인 비전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정체성의 근원인 문화란 일반적인 인식처럼 순수하고 지고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이데올로기들의 혼합체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데올로기들에 대한 연구는 그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특히 아메리카 토착 원주민의 경험, 아프리카 출신 노예의 경험 그리고 제국주의에 대한 경험 등이 수백 년 동안 지속된 지역에서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취급한다면 그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이야기방식을 통해 아이티인들의 잊혀졌던 역사를 흑인의 관점에서 복원해냄으로써 서구의 <중심> 의식과 <근원> 의식을 해체시키거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을 통해 인디오 문화의 생명력을 드러내며, 실패한 프랑스 혁명의 그림자가 어떻게 라틴아메리카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끊임없이 탐구했던 마술적 리얼리스트 카르펜티에르의 작품들은 매우 흥미해볼 만한 것들이다. <서구>라는 고정된 중심과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카리브해 지역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III. 카르펜티에르의 소설에 나타난 정체성 담론의 변화과정:  
경이로운 현실에서 바로크적 혼종성으로

III.1. 『지상의 왕국』: 아이티의 잃어버린 역사의 복원

악마: 들어가게 허락해 주소서.  
 신: 누구냐?  
 악마: 서양을 지배하는 왕입니다.  
 신: 네가 누군지 알겠다. 나쁜 놈. 들어 와!

(악마가 들어간다)

악마: 존경 하옵는 관관님이시며, 이 우주의 영원한 주인이시여! 제가 끼친 폐해를 치유해보겠다고 콜럼버스를 어디로 보내시는 것이옵니까? 벌써 여러 해 전에 제가 거기에도 손을 뻗었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로페 데 베가(Carpentier 1991, 19, 이후 이 책의 인용은 괄호안에 폐이지만 명기하겠음)

라틴아메리카 제 2의 혁명기인 1949년<sup>1)</sup>, 카르펜티에르는 노예들의 반란, 흑인 독재 왕정 그리고 공화정에 이르는 아이티의 격동기를 흑인의 관점에서 다룬 『지상의 왕국』(*El reino de este mundo*)을 발표한다. 1804년 라틴아메리카 최초로 독립을 획득한 아이티는 프랑스의 유산과 흑인성 그리고 스페인적 유산들이 혼재되어 있는 곳으로 카리브해 지역의 모든 문제들을 대별할 수 있는 상징적인 국가이다. 콜럼버스라는 유럽인에 의해 발견되어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식민지가 건설된 이래, 스페인의 침략과 프랑스의 수탈 그리고 영국·네덜란드 등의 해적들에 의한 노략질까지 모든 종류의 제국주의적 침탈

---

1) 1949년은 아우텐티코 정당(Partido Auténtico)의 프리오 소카라스(Prio Socarras)가 집권했던 시기로 30년대의 진취성을 잃고 미국에 의존하면서 수많은 부정부패 스캔들을 일으켰던 시기이다. 이에 실망한 민중들은 47년 치바스(Edard Chibaz)를 중심으로 오르토독스당(Partido Ortodoxo)을 창당하여 부패정치를 공격하였고, 이에 정권은 치바스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등 정권과 민중의 대결이 극에 이른 시기였다. 결국 이러한 대립은 치바스의 자살(1951)과 바티스타의 무혈쿠데타(1952), 그리고 카스트로의 몬카다 공격(1953)으로 이어지는 등 말 그대로 격동의 시대였다.

을 겪은 땅이다. 또한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등으로 압축되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에 이르는 세계사의 격동기엔 라틴아메리카 최초로 노예해방과 독립을 이뤄낸 혁명의 땅이었다. 하지만 기존의 공식 역사가들은 아이티 혁명을 프랑스혁명의 부산물 정도로 폄하하였고, 이는 1940년대 카리브해 제 2의 혁명기를 맞이한 작가에게 빼앗긴 역사에 대한 성찰을 하도록 만든 자연스러운 동인이 되었다. 그의 눈에 비친 카리브해 세계는 정치·역사·사회·문화·지리적으로 동일한 공동체였으며, 이는 에레디아(Heredia)와 마르티의 19세기부터 20세기의 니콜라스 기옌에 이르기까지 많은 쿠바 작가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하지만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들의 자의적 필요성에 따라 이들을 강제적으로 분리시켜 놓았기에, 이를 극복하고 통일된 카리브해 공동체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역사의 회복이 필수적이었다.

잃어버린 아이티 투쟁의 역사를 그들의 주체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지상의 왕국』은 서로 독립적인 4가지 사건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있는데, 첫 장면은 1750년대 흑인노예들의 반란으로 시작한다. 중심인물은 1758년에 처형된 실존인물인 흑인노예 마강달(Mackandal)로, 그는 프랑스인들의 압제를 피해 산 속으로 탈출한 뒤 그곳에서 독버섯을 발견해 저항운동의 수단으로 사용한 인물이다. 독버섯을 활용해 압제자들의 가축과 가족을 살해하던 그는 체포되어 화형 당하지만, <새>로 부활했다고 믿어지는 부두교의 신화적 인물인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작가는 당시의 잊혀졌던 역사뿐만 아니라 흑인들의 사고와 행동양식, 그리고 당시의 사회구조까지 복원시키고 있다. 프랑스인 지주들과 흑인 노예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랐으며, 역사에 대한 해석과 믿음도 달랐다. 프랑스 지주들 눈에 비친 변신술과 구원,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되는 죽음에 대한 노예들의 믿음은 무지몽매한 미신일 뿐이지만, 흑인들에겐 저항정신의 끊임없는 계승으로 이해된 것이다.

2부의 역사는 30년이 지난 1791년에 일어난 부크만(Bouckman)의 반란을 다루고 있다. 프랑스 혁명은 흑인노예들에게도 자유를 주어

야 한다고 일깨웠지만 식민지의 지주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크만은 원죄를 강요하는 백인들의 신을 버리고 복수의 신, 피눈물에 목말라하는 자신들의 신을 따를 것을 주장하며, 자유를 위한 투쟁에 나선다.

-백인 신은 우리에게 원죄를 강요하고, 우리 신은 백인들에게 복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신은 우리 손발을 이끌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의 피눈물에 목말라하는 신, 그 백인이 섬기는 신의 모습을 깨부수십시오! 우리 마음 속에서 자유를 향한 아우성을 들어보십시오!(51)

그로부터 15년여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3부는 시작된다. 1804년 아이티는 라틴아메리카 최초로 독립을 획득했으며 노예제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독립의 획득이 곧바로 민중들의 자유와 인권의 회복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독립전쟁의 영웅 투쟁(Toussaint Louverture)의 부하였던 장 자크 데살리느(Jean-Jacques Dessalines)가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그는 곧 공화정을 버리고 황제로 등극했다가 1806년 앙리 크리스토프(Henri Christophe)와 알렉산드르(Anne Alexandre Sabes)에 의해 암살을 당하는 등 심한 권력투쟁을 겪은 후에 아이티는 둘로 분열된다. 1807년부터 북쪽 지역을 통치하던 앙리 크리스토프 또한 1811년에 이르러 스스로를 황제로 선언하고 독재정치를 실시한다. 민중계급에 속했던 요리사 출신이 권력을 장악했지만 통치방식은 18세기 프랑스 왕정의 모습과 한치도 다르지 않게 된 것이다.

마지막 4부는 1825년경의 아이티를 다루고 있다. 프랑스인 식민자들도 앙리 크리스토프같은 독재자들도 모두 쫓겨났지만 몰라토들의 지배 하에 있는 민중들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 농사부역은 다시 의무화되었으며, 공화주의 체제의 집권계급인 몰라토들 또한 채찍으로 민중들을 뒤흔치고 있었다. 백여 년에 이르는 자유와 인권을 위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아이티의 민중들에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다. 프랑스인 지배자에서 흑인 독재자로, 흑인 독재자에서 몰라토 공화주의자들의 과두제로 지배계급만 변화된 것이다.

인간의 위대함은 현재의 자기 조건을 개선하려는 데 있다. 즉 스스로에게 과업을 부과하는 데 있는 것이다. 천상의 왕국에서는 성취해야 될 위대함이란 없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계급이란 이미 정해져 있고, 알 수 없는 것들이란 없으며, 무언가를 위한 희생이란 불가능하며, 영원한 삶과 안식과 즐거움만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고통과 노동으로 신음하는 비참한 삶 속에서도 아름다울 수 있으며, 힘든 운명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인간은, 오직 이 지상의 왕국에서 최대한 자신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118-119).

콜럼버스의 카리브해 도착 직후부터 수탈만 당했던 아이티와 그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역사는 40년대 진정한 변혁운동이 필요한 쿠바의 문제의식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변혁운동은 서구의 이식된 계몽주의 사상이 아닌 민중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변혁운동이어야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변혁운동이 항상 실패로 귀결됐다는 패배주의적 인식이다. 프랑스인의 지배에서 앙리 크리스토프의 독재로, 그리고 독재에서 몰라토들의 과두제로 바뀌는 동안 민중들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순환론적 패배주의는 쿠바혁명을 경험하기 이전의 지식인들이 갖는 한계였는지도 모른다. 그랬기에 작가는 역사의 승리라는 낙관적 전망보다는 “인간의 위대함이란 현재의 자기 조건을 개선시키려는” 자기 희생에 있다는 도덕론을 강변하면서, 몰라토들에 대한 또 다른 투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지상의 왕국』은 서문의 <경이로운 현실> 개념으로도 유명한데, 이는 라틴아메리카 정체성 담론과 마술적 리얼리즘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작품이다. 카르펜티에르는 ‘현실을 경이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마빌(Pierre Mabilie) 등 프랑스 초현실주의자들의 권고를 오히려 유럽의 영향을 거부하는 차이의 담론으로 승화시킨다. 서구 초현실주의자들의 경이로움 추구가 인위적 조작인 반면, 라틴아메리카의 경이로움은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정체성 자체라는 것이다.

초현실주의자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해왔던 것처럼, 불신 상태에서 불러일으키는 경이로움은 일종의 문학적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지속되었을 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일종의 ‘조작된’ 몽상 문학이나 광기 예찬처럼 정말 따분할 뿐이다.(15)

경이로운 것이 아직 존재하고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티만이 가진 유일한 특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컨대, 그 기원이나 생성 등과 관련하여 아직 정리가 다 되지 않은 모든 아메리카의 유산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에 기록을 남긴 사람과,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는 성(姓)을 남긴 모든 사람이 지나간 발걸음마다 경이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 아메리카는 풍광의 처녀성 때문에, 그 형성과정과 본질 때문에, 그곳에 사는 인디오와 흑인의 비극적 현실 때문에, 근래에 자기발견을 이룩하게 한 큰 깨달음 때문에, 많은 것들이 풍요롭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결코 신화의 물줄기가 고갈될 수 없는 곳이다. (...) **아메리카의 모든 역사는 경이로운 사실들의 연대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17-18)

카르펜티에르는 서구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담론으로써 경이로움을 받아들인 초현실주의자들을, 생명력이 결여된 관념적 근대 유럽 정신의 또 다른 기교주의자들일 뿐이라고 혹평한다. “경이로운 느낌은 하나의 믿음을 전제로”(15) 하지만, 초현실주의자들은 믿음이 결여된 채 시늉만 내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서구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하는 역설적 태도는 당시의 지식인들이 겪었던 ‘영향에 대한 불안’을 잘 드러내 준다. 당시의 문명의 몰락이라는 관념적이고 순환론적인 주장을 폈던 슈펜글러의 『서구의 몰락』과 호르크하이머·아도르노 등의 비판철학이 라틴아메리카에 영향을 끼치던 때로, 이는 파스(Octavio Paz)의 『고독의 미로』(*El laberinto de la soledad*, 1950) 등에도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다.<sup>2)</sup> 특히 “슈펜글러는 『서구의 몰락』에서 자아성찰적인 유럽 지식인을 비판하고, 원시 사회의 주체는 비성찰적이기 때문에 더욱 진정하다고 평가했는데”(Chanady 2001, 115), 서구 사회에 대한 그의 부정적 평가는 『지상의 왕국』의

2) 파스는 이 책에서 유럽적 이성만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전체주의적 사회를 낳았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논지는 당시 미국에 망명 중이던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주장과 같은 것이다.

핵심 테마이기도 하다.

칠레의 비평가인 베르나르도 수베르카소(Bernardo Subercaseaux)는 「소외의 왕국」(*El reino de la desalienación*)이란 글에서 『지상의 왕국』엔 유럽적인 요소와 아프리카적인 요소로 이루어진 두 개의 상반된 중심 축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카르펜티에르는 진보적 질서·계몽이성·카톨릭·외국적 관습·백인 등으로 상징되는 유럽적인 요소와 유럽화된 흑인·물라토들을 극복되어야 할 현실로 바라보았으며, 이에 대응하는 자유적 무질서·토착 신·부두교·토착 관습·흑인 등 아프리카적 요소는 인간의 해방을 불러오는 바람직한 문화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그의 비평처럼 『지상의 왕국』엔 유럽적인 요소와 아프리카적인 요소의 대비가 돋보인다. 칸칸 무싸(Kankán Muza), 아돈우에소(Adonhueso) 같은 아프리카의 왕들은 “몸소 창을 들고 선두에 서서 군대를 이끌며 영토를 방어하는”(24) 진정한 왕들인 반면, 백인 왕들은 “남의 머리카락을 뒤집어쓰고, 공놀이나 즐기면서”(24) “자기 대신 장군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는”(24) 나약한 왕으로 그려진다. 군주같이 행세하는 식민지 지주들은 “아메리카 카르타헤나의 약탈에 참가했거나, 스페인 왕국의 보물에 손댔던”(36) 파렴치한들의 후손들이며, 백인 창녀들은 “본국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남겨둔 채, 파리의 경찰로부터 도망쳐 식민지로 온”(49) 범죄인들로 묘사된다. 그런 백인들은 흑인들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 채 그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며 그들의 종교를 이식시키려 든다. 하지만 그들의 카톨릭적 믿음이나 진보적 과학도 마캉달의 독에 의해 가축들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사람들은 독으로 계속 죽어갔다. 간절한 기도도, 의사들의 처방도, 신에 대한 맹세도, 한 영국인 뱃사람의 안수도, 마법사와 돌팔이 의사의 비방(秘方)도 아무 소용없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던, 성령 강림절인 어느 일요일이었다. 르노르망 드 브지 부인은 자애롭게도 손에 잘 닿도록 늘어진 나뭇가지에 열린 아주 탐스러운 오렌지 하나를 따서 입에 대기가 무섭게 숨이 끊어졌다. 마치 공동묘지에 남은 마지막 묘 구덩이를 차지하려 서두르듯 그렇게 황망히 죽었다.(34)

르노르망 드 므지(Lenormand de Mezy)와 플로리도르(Floridor)로 상징되는 백인 지주들의 타락한 모습도 백인 식민지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르노르망 드 므지씨는 나이를 먹을수록 괴팍한 주정뱅이로 변해 갔다. 성숙한 처녀 노예들의 피부 색깔이 그의 후각을 자극한 데다가 끝없는 성욕 때문에 호시탐탐 그녀들을 노리고 있었다. 또 남자 종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데에도 갈수록 열을 올렸는데, 특히 그들의 혼외정사를 발각했을 때는 더욱 심했다. 한편 말라리아를 호되게 앓은 나머지 수척해진 여배우 플로리다양은 자기를 목욕시켜주고 빗질해 주는 여종들을 온갖 꼬투리를 잡아 때리면서 연기자로서 실패한 것을 분풀이하였다. 어떤 밤에는 술에 폭 절어 버리기도 했다. 그럴 때는 달이 중천에 떠 있는 한밤중에 모든 하인을 다 깨워 모아 놓고, 그들 앞에서 역한 포도주 냄새를 풍기는 딸꾹질을 해 가며 과거에 해본 적도 없는 주인공 역할들을 종종 해 보이곤 했다. 귀부인의 수행원이자 수줍음 잘 타는 하녀 역할을 할 때 쓰던 베일을 덮어쓰고, 레파토리 중 음이 높고 격정적인 부분을 악을 쓰며 불러 대곤 하였다.(49)

레클레르크(Leclerc)가 죽고 파울리나 보나파르테(Paulina Bonaparte)가 떠난 뒤의 아이티 상황도 대단히 비판적이다. 지주들은 절망감에 빠져 “시계조차 보지 않을 정도로” 쾌락의 향연 속으로 빠져들었고, 새로운 총독은 “여자를 대접받는 대가로 많은 특혜를 베푼다”(70). 이에 까보의 여인들은 “흑인과 정을 통한 백인 여자는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프랑스로 귀환 조치함”이라는 문구가 씌어 있는 포고문을 보며 야유를 퍼붓는다. 이러한 무질서는 흑인 노예들의 반란이 성공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고, 마침내 <이성의 여신>은 오군 바다그리(Ogún Badagri) 신에게 패퇴한다. <이성>과 <계몽>으로 상징되던 프랑스혁명의 모습이 쾌락과 무질서로 변모한 뒤에 원시적인 흑인노예들의 신에게 패퇴한 것이다.

독립을 획득한 뒤에 보여지는 앙리 크리스토프와 부하들의 모습도 원래의 흑인문화를 상실한 채 변질된 서구문화의 재현에 불과했기에 스스로 붕괴되어야만 했다. 노예들은 원래 “자신들의 반란을 부추기고 연대감을 심어 주는 밀교를 가지고 있었다.”(57) 하지만 프랑스의

재정복에 대비해 라페리에르 요새를 건설할 때 사용된 부두교 의식은 더 이상 흑인들이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공통된 의식이 아니었다. 요새를 난공불락으로 만들기 위해 소의 피를 섞어서 회반죽을 만드는 행위는 일견 흑인들의 의식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동족들을 핍박하는 가해자의 의식일 뿐 민중들의 바램과는 거리가 멀었다. 동족을 핍박하는 기마병들은 흑인문화를 버리고 나폴레옹 군대 같은 화려함을 추구했으며, “그 화려함은 나폴레옹 휘하 장군들의 허세를 능가할 정도였다.”(78) 또한 “상-수시 궁전의 실내악단이나 사치스러운 제복, 화단의 다듬어진 회양목, 그 사이 사이에 있는 나선형 조각 장식 받침대 위에서 햇빛을 쬐고 있는 백인여인의 나체 조각상들은, 백인들이 흑인노예에게 했던 것보다 더 가혹하게 동족을 핍박하기 때문”(83)에 가능했으며, 그것은 또 다른 제국주의 문화의 복사에 불과할 뿐이었다.

이렇듯 『지상의 왕국』엔 백인문화와 흑인문화의 대립이 두드러지며, 백인문화 대신 흑인문화를 동경하고 옹호하는 담론의 역전이 일어난다. 아메리칸인들의 경험 속에 살아있는 비유럽적 문화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이러한 아프로-아메리카니즘은 인디헤니슴과 함께 20세기 변혁운동의 큰 축을 형성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흑인문화가 서구문화보다 더 우월하다는 담론은 서구문화와 흑인문화의 관계를 역전시킴으로써 흑인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서구중심의 이분법을 재생산하는 오류를 범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훗날 뒤발리에(Duvalier) 대통령에 의해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악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서구중심주의 담론구조에 일정 부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III.2. 『잃어버린 발자취』: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철학 여행

카르펜티에르는 1953년 아이티의 역사와 흑인성을 통해 카리브해

의 정체성을 추구했던 전작에 이어 아메리카 대륙의 또 다른 정체성인 인디오성을 부각시키는 소설 『잃어버린 발자취』(*Los pasos perdidos*)를 발표한다. 하지만 노예반란의 역사를 재구성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모색하는 인간의 숙명적인 모습을 그려냈던 전작과는 달리, 『잃어버린 발자취』는 문명세계에서 원시세계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여행을 통해 또 다른 자유인 정신적·지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행소설이다. 호머의 『오디세이아』에 등장할 정도로 유래가 깊은 여로의 형식은 현대소설에서 자주 발견되는 서사방식으로 여행이라는 행위가 지니는 구체성과 길의 견고함을 빌려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여행에 동반되는 이야기는 시작과 끝이라는 완결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그 여행이 이루어지는 길의 성격에 따라 이야기는 개방성을 띠기도 하고 폐쇄성을 띠기도 하며 등장인물의 수가 엄격히 제한되거나 무한정 늘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라틴아메리카 소설에서 여행소설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으며, 특히 정글로의 여행이란 테마는 끼로가(Horacio Quiroga)·가예고스(Rómulo Gallegos)·리베라(José Eustasio Rivera) 등 많은 작가들에 의해 애용된 기법이였다. 하지만 여로의 형식이 갖는 최대의 장점은 원래의 여행이 기획했던 초기의 목적과는 다른 예기치 않았던 경험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변모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메트로폴리스에서 영화음악을 작곡하던 화자는 대학의 지원 속에 원주민 악기를 찾아 남미로 떠난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베네수엘라는 폭동과 소요에 휩싸여 있었고, 화자는 이를 피해서 오리노코 강상류를 거슬러 정글로 여행을 떠난다. 정부인 무쵸(Mouche)와 떠난 여행에서 ‘선지자’(el adelantado)와 그의 아들 마르코스 그리고 인디오 여인 로사리오(Rosario)를 만나게 되며, 선지자의 안내를 받아 산타 모니카(Santa Mónica de los Venados)란 원시의 마을에 도착한다. 이곳은 문명의 법칙이 아닌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며, 태초의 신비를 간직한 원시적 이상향이다. 화자는 이곳에서 생명력의 화신인 로사리오와 사랑을 나누고, 자연의 소리와 원주민의 타악기 소리가 어울려 만들어내는 조화로움 속에 악상을 떠올리는 등 원시세계

에 탐닉하게 되지만, 결국은 도시인·문명인의 한계를 깨닫고 거대 도시로 귀환하게 된다. 작가는 이렇듯 여행 중에 우연히 만난 인디오 여인과 원시적인 자연의 모습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강렬한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흑인문화와의 대비를 통해 서구사회를 신화가 걸여된 불임의 땅으로, 라틴아메리카를 원시적 생명력이 강한 희망의 대륙으로 묘사했던 전작의 연장선상에서 토착적인 인디오 문화와 서구문화와의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작품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은 고유한 지리적·사회적·역사적 특징과 함께 독특한 시대성을 상징한다. 뉴욕처럼 보이는 대도시에서 진행되는 제 1장은 위선적이고 병든 현대성을 상징하며, 제 2장 라틴아메리카 도시에서의 사건들은 19세기 중반 낭만주의 시대를 나타낸다. 아눈시아시온(Anunciación) 항구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기록인 제 3장은 15세기 정복의 시대를 표현하고 있으며, 강과 정글에서 이루어지는 제 4장의 사건들은 석기시대와 창세기의 사건들에 다름 아니다. 특히, 시간의 문을 통과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은 인류의 창조 이전인 창세기의 제 4일째에 해당되는 것들로 역사와 시간의 종언을 암시한다. 산타 모니카와 ‘잃어버린 시간’의 계곡(Valle del Tiempo Perdido)으로 묘사된 제 5장 고원지대에서의 생활은 탈시간·탈역사적인 도피행위를 상징하고, 마지막 제 6장은 현대적인 일상으로의 복귀를 의미한다(Padura Fuentes 2002, 292). 즉 현대적인 일상으로부터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여행을 통해 현대인이 상실한 원시적 생명력과 자유를 모색하는 철학적인 소설인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 역시 서구의 영향과 그에 대한 거부가 동시에 드러난다. 민속악기의 구입이라는 여행의 목적이 성취되고 나면 화자는 대도시의 부인 곁으로 복귀해야만 한다는 의미에서, 외견상 트로이 전쟁 이후 이타카로 복귀하는 오디세우스의 모험과 닮아있다고 볼 수도 있다. 오디세우스는 이타카로 귀환 도중 섬의 요정 칼립소에게 붙잡혀 고난을 겪다가 나우시카 공주의 도움으로 페넬로페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이는 로사리오의 유혹에 빠져 정글에 붙잡혀 있다

가 니카시오(Nicasio)로 인해 대도시로 귀환하는 화자의 상황과 비슷하다. 또한 귀환이라는 여행의 성격도 비슷한데 현대인의 영원한 타향인 대도시에서 원초적 고향인 정글로 향하는 화자의 여행은 트로이에서 이타카로 향하는 오디세우스의 그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두 작품 사이에는 등장인물의 도덕성이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고향에 있는 여인 페넬로페가 정절과 도덕성의 상징인 반면 여행지에서 만난 칼립소는 부정과 악의 상징이다. 하지만 『잃어버린 발자취』에선 고향의 부인 루쓰(Ruth)가 명예욕에 사로잡힌 악마적인 모습으로 그려진 반면 여로의 연인 로사리오의 원시적 여성성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반전이 일어난다. 서구소설의 정전이요 근대 헬레니즘 문화의 고전인 『오디세이아』에 대한 전복을 통해 서구문명의 몰락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표현된 근대성·합리성·문명성에 대한 비판은 제 3장 로사리오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다. 그녀는 기적을 진정으로 믿었기에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머나먼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그녀의 신앙은 부친의 사망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으로, 화자의 주변인물들인 도시인들의 자아성찰적이고 냉소적인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이다. 그녀의 부친이 사망한 뒤, 사망 원인을 기도 탓으로 돌리는 다음의 에피소드는 이러한 그녀의 절대적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그녀는 14명의 성자에게 간구해 보았지만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담담한 태도로 말했다. 그녀가 이야기해준 부친의 병도 내겐 무슨 전설처럼 들렸다. 부친의 병은 친구와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됐으며, 강을 건널 때 내리쬐던 땀별이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땀별은 화를 더욱 승하게 만들었고, 화를 이기지 못한 부친이 쓰러지며 반신마비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반신마비는 근육과 몸의 일부분에 염증을 일으켰고, 사십일 간의 고열에 시달린 끝에 심장막이 딱딱하게 굳어졌다는 것이다(Carpentier 2003, 135, 이후 이 책의 인용도 괄호 안에 페이지만 명기하겠음).

병을 치료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로사리오의 주술적 종교

관과 애니미즘적 자연관은 그녀를 도시인들과 더욱 구별되게 만드는 요소이다. 그녀는 풀들을 언급할 때조차도 “신비로운 왕국에 거주하는 살아있는 존재”(86)를 언급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자연에 대해 한없이 경외로운 자세를 취하는 그녀의 모습은 비록 “레이스와 주름 및 리본 등이 조잡하게 얽힌 유행에 뒤떨어진 낡은 옷을 입고 있을 지라도”(86) 처음부터 화자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깝고 아름답게 느껴지도록”(109) 만들었다. 현대성과 주술성이 공존하는 삶을 영위하는 라틴아메리카 민중들의 <경이로운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로사리오의 모습은 화자에게 잃어버린 고향을 찾은 듯 다가가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녀와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진다.

로사리오와 가까워지는 만큼 화자는 여행의 동반자이자 정부인 무쇄와 멀어지게 된다. 속임수로 가득 찬 작위적 근대성을 상징하는 인물인 무쇄는 “모든 분쟁의 원인이 되는 여인, 모든 사람들의 본능적인 거부를 받는”(151) 여인으로 그려지며, 결국엔 여행에서 낙오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작위적인 모습은 모든 근대인들의 서글픈 초상이다. 근대성의 상징적인 이름인 부인 루쓰는 화자를 정글에서 꺼내기 위해 거짓 기사를 조작하며, 연극이 실패하자 기나긴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결혼이라는 가장 순수한 인간관계마저도 명예와 부를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기사에 나온) 나는 과학연구를 진행하다 순교한 사람이며, 이러한 사실은 그녀를 존경할만한 부인으로 믿게 만들었다. 부부의 덕목은 연극과 예술의 세계에 존재했으며, 사회의 규범을 깨뜨리는 데 재능은 구실이 되지 않았다. 그들은 아나 막달레나의 <작은 집>을 보았고, 멘델스존의 평온한 집을 생각해냈다(243).

이런 작위적인 근대인의 모습은 여로에서 만난 젊은 예술가들에게도 발견된다. 현재 그들이 살고있는 라틴아메리카의 모습이나 자연 대신 파리의 모든 것이 유일한 관심사항으로 자리잡은 예술가들의 행태는 서구중심주의에 깊숙이 물들어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서글픈

현실인 것이다.

황혼 무렵부터 집에 갇혀있도록 강요하는 통행금지를 벗어나기 위해 탈출한 우리 일행들처럼, 세 명의 젊은 예술가들도 수도에서 탈출해 우리 바로 직전에 이곳에 도착했다. 그들은 전형적인 백인 음악가와 인디오 시인, 흑인 화가들로서, 해먹에 누워있는 무쇄 주위에 둘러앉아 무슨 경배를 드리듯이 질문을 했고, 그녀가 그것들에 대답하는 모습은 나로 하여금 동방박사들 외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게 만들었다. 테마는 오직 한가지 파리에 관한 것이었다. (...) 나는 그들에게 정글에 가봤냐고 물었다. 인디오 시인이 어깨를 붙잡으며 정글에는 아무 볼 것도, 볼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런 여행은 활과 전통을 수집하려고 혈안이 돼있는 외국인들에게나 어울린다고 대답했다. 흑인 화가도 정글에는 문화가 없다고 동의했다. 음악가는 오늘날의 예술가들은 오직 현재의 사상과 창작이 가장 활발한 곳에서만 살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과 동료들의 지적 지형도가 있는 유럽의 도시로 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74-75).

이런 근대적 작위성으로부터 탈출해서 원시세계에서 행복하게 살던 화자에게 문명인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나병환자 니카시오가 우기 때 성욕을 느껴 여덟 살짜리 어린애를 겁탈하려는 사건이 벌어지고, 화자는 이에 분노해 그를 죽이려 든다. 하지만 겁에 질린 채 무릎을 꿇고 있는 니카시오를 보자 망설이게 되고, 이는 그에게 자신의 한계와 이방인임을 자각하게 만든다. 도시를 떠나 원시적 자연에서 잃어버린 자아와 고향을 찾으려 시도했던 화자의 노력이 결국 실패하고 만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잃어버린 발자취』의 주요 테마도 서구문명과 대비되는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재발견이며, 전작이 흑인문화를 재발견해 냈다면 이 작품에선 인디오문화의 건강함을 다시 발견해 낸 것이다. 전근대와 근대가 공존하는 라틴아메리카 현실에서 서구와의 관계설정에 고민하던 작가가 서구문화와 토착문화의 관계를 역전시킴으로써 토착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역시 회의주의적이고 순환적인 역사관은 극복하지 못했으며, 그랬기에 작가는 작품 말미를 “오늘 시지프스의 휴가는 끝났다”(279)라고 매듭짓는 것이다.

사실 시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서구의 근대성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직선적 시간관이며, 다른 하나는 근대 이전의 시간 개념인 순환적 시간관으로 시간이 원운동 하듯이 회귀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서구의 한계를 인식하고 서구의 지배를 거부하는 작가들에게 순환적 시간관은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하지만 순환적 시간관에서는, 즉 시간이 끝없이 순환되고 보편 속으로 회귀하는 과정 속에서는 동일한 사건이 수없이 반복될 뿐이며 개체는 보편에 흡수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은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역사적 사건이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 현실에 순응하는 패배주의적 역사관이 자리잡을 위험성이 상존한다. 그리고 역사적 경험 속에서 단 한번도 승리를 맛보지 못했던 라틴아메리카의 민중들에게 패배주의적 역사관은 일견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쿠바혁명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어 놓았다.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시간은 시냇물처럼 일직선으로 흐르지는 않는다.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든, 미래로부터 현재를 거쳐 과거로 소멸해 버리든 그렇게 직선적으로 흐르지 않고, 현재 속에 과거와 미래가 함께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시간은 직선적으로 나가는 하지만 현재 속에서 과거와 미래가 소통하는 것이다. 즉 단순히 순환적이거나 직선적이지 않고 순환적임과 동시에 직선적인 것이다. 이런 인식 아래 공생·혼혈의 바로크주의가 탄생한 것이다. 에스테반과 소피아가 마드리드에서 반프랑스 무장항쟁에 참전하는 『계몽의 세기』(*El siglo de las luces*, 1962) 마지막 부분은 이러한 낙관론적 인식전환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 III.3. 『계몽의 세기』: 실패한 프랑스 혁명의 그림자

인간은 정치적 이상(理想)없이 살아갈 수가 없으며, 단 한번의 시도로 민중들의 행복을 획득할 수는 없다. 인간들은 분명 심각한 실수들을 저질렀지만, 그 실수들은 미래를 위해 유용한 가르침이 될 것이다. 그녀 생각에 (... 에스테반은) 과격한 이상주의의 희생자일지도 모르며

혁명의 과잉은 한탄스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인간의 위대한 업적들은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결국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지상의 어떤 위대한 업적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Carpentier 1993, 144, 이후 이 책의 인용도 괄호 안에 페이지만 명기하겠음).

많은 비평가들 사이에 완벽하고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카르펜티에르의 『계몽의 세기』는 실존주의의 회의주의를 극복하고 낙관주의적 전망을 드러낸 작품이다. 역시 카리브해의 정체성을 모색하고 있는 이 작품의 테마는 실패한 프랑스 혁명과 라틴아메리카 이식과정에서 생긴 어두운 그림자이다. 카리브해 국가들의 19세기 해방운동을 주체적인 저항운동의 관점에서 파악했던 『지상의 왕국』의 사회로 되돌아간 것이다. 하지만 서구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주체적 관점에서만 서술했던 역사인식에서 중립적인 역사인식으로 전환한 작품이다. 단두대의 도입으로 시작되는 소설은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카리브해 민중들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왜곡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문과 에필로그를 제외하면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설은 아바나에서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카리브해의 다양한 국가로 전개되는 등장인물들의 여행과 그에 수반된 혁명의 전과과정을 다룬 뒤에, 마드리드의 반나폴레옹 항쟁에서 끝을 맺는다.

스페인에서 이주해 사탕수수 농장을 경영하던 쿠바 상인이 남매인 카를로스(Carlos)와 소피아(Sofía) 그리고 조카인 에스테반(Esteban)을 납기고 죽은 뒤, 유럽의 계몽주의자 빅토르(Victor Hugues)가 나타나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다. 그에게 감화된 에스테반은 그를 따라 프랑스로 건너가 혁명에 동참하게 된다. 혁명이상을 전파하는 사명감에 불타던 빅토르는 과달루페로 돌아가서 계몽적 독재자로 변모하게 되고, 그런 그에 환멸을 느끼던 에스테반은 그를 떠나 쿠바로 되돌아간다. 한편 빅토르를 사랑하던 소피아는 그가 떠난 뒤 영국인 자본가와 결혼하지만, 남편이 죽자 바로 빅토르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그녀 역시 압제자로 변모한 빅토르에게 실망하여 스페인으로 떠나게 되고, 스페인에서 재회한 에스테반과 소피아는 1808년 5월 2

일 반나폴레옹 무장봉기에 참가하여 생을 마친다. 혁명이라는 격동기의 역사에 휩쓸린 세 인물의 사랑과 갈등을 그린 대서사시인 것이다.

그런데 이 소설에선 그동안 지속되던 서구와 아메리카의 대립구도가 해소된다. 서구인인 빅토르는 아메리카에 계몽사상과 자유·평등·박애라는 혁명의 이상을 전파해주며, 에스테반이 애플 뎀 몰라토인 오헤(Ogé)를 불러 주술적인 치료를 받게 만든다. 또한 포르토-프랑스가 화염에 뒤덮였을 뎀 오헤가 빅토르와 에스테반의 탈출을 돕는 등 서구와 라틴아메리카의 적대적인 대립구도는 해소된 것이다. 이 소설의 중심인물인 에스테반 또한 유럽과 아메리카를 두루 섭렵하면서 두 세계의 공존과 종합을 모색한다.

“뭔가 해야만 해! 뭔가 해야만 한다고! ...” 소피아가 절규했다. 잠시 무표정한 표정을 짓던 빅토르가 어려운 결정을 내린 듯 마차를 불러달라고 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누군가 특별한 권능을 가진 사람을 부르러 간다는 것이었다. 삼십 분쯤 뒤 늙은 체격에 우아한 옷을 입고 있는 메스티조를 데리고 그가 돌아왔다. 포르토-프랑스에서 알게 된 뛰어난 의사요 자선 사업가 오헤라며 그를 소개했다. 소피아는 방금 도착한 사람에게 가볍게 목례는 했지만 손을 내밀지는 않았다. 그의 얼굴은 쳐다보지 않아도 명확하게 추측할 수 있었다. 넓은 코에 곱슬곱슬한 머리가 붙어있는 가짜 피부 같은 얼굴일 것이었다. 그녀에게 흑인이란 하인이나 노동자, 마부, 유랑가수들을 의미했다. (...) “흑인이잖아!” 소피아가 빅토르에게 귓속말을 했다. **“모든 인류는 동등하게 태어났습니다.”** 빅토르가 그녀를 살짝 밀치며 대답했다(52-53).

하지만 이 소설의 중심 테마는 실패한 프랑스 혁명과 그것이 라틴 아메리카에 전이되면서 생긴 어두운 그림자들이다. 당시의 카리브해는 전통적 봉건지주들과 공화주의 부르주아들 사이에 사회적·경제적 모순에 대한 심각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했었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갑자기 유입된 부르주아 혁명은 극심한 혼란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혁명이상을 전파하기 위해 출항한 배에 단두대를 싣고 오는 모습은 프랑스에서조차 이미 실패한 이데올로기를 라틴아메리카에 이식하는 것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나

타내는 상징으로 기능한다.

육지가 가까워지자 싱싱한 풀 냄새를 맡은 말들이 히힝거리고, 사람들이 고향을 지르며 포가(砲架)를 설치하느라 돛 줄과 도르레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 인쇄공들은 항해 중에 인쇄한 수백 장의 포스터들을 빅토르 휴즈에게 건네 주었다. 그 포스터에는 노예제의 폐지와 인종이나 경제적 상태에 관계없이 섬의 모든 주민은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프랑스 공화력 5월 칙령이 인쇄되어 있었다. 빅토르는 절도있는 걸음으로 갑판을 지나 단두대에 다가갔다. 그리고 덮개를 열어 제쳐 예리한 칼날이 햇빛에 드러나도록 했다. 단두대의 큰칼에 오른 손을 기대고 있는 빅토르 휴즈의 모습은 갑자기 딱딱한 권위와 폭력을 상징하는 커다란 알레고리로 변했다. **자유와 함께, 신세계에 첫 번째 단두대가 도착한 것이다(156-157).**

혁명의 이데올로기와 함께 도입된 단두대는 혁명의 전개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전개될 모순들을 암시하는데, 이 모순들은 점점 깊어지다가 결국엔 혁명의 이데올로기를 스스로 부정하게 만든다. 빅토르는 한편으로는 낭만적이고 자발적인 혁명가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혁명의 성공을 위해 혁명군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이었다. 그랬기에 과달루페를 점령한 후 맨 처음 실행한 일이 단두대의 설치였으며, 두 번째 업무가 막 해방된 흑인노예들에게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게으르거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흑인 또는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온한 흑인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질 것(183)”이라고 선언하게 된다. 그가 꿈꿨던 혁명의 이상, 즉 모든 인간은 인종이나 경제적 상태에 상관없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가장 본질적인 원칙이 처음부터 실패한 것이다.

“당신만 알고있어. 당신이 잘 알고있듯이, 내가 저 해적들에게 한 약속은 지킬 수 없을 거야. 불길한 선례가 될 거거든. 그리고 혁명위원회도 그걸 참지 못할 거고. 우린 네덜란드령 섬으로 갈 건데 거기서 저 흑인노예들을 팔아 버릴 거야.” 에스테반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면서, 노예제의 폐지를 선언한 칙령을 언급했다. 선장은 그의 선실에서 빅토르가 서명한 훈령을 꺼내 보였다. “프랑스는 혁명의 민주적인 원칙들로 인해 노예무역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해적선의 선장들에게 그것이

필요하고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되는 한, 영국, 스페인 등 공화국의 적들로부터 약탈한 노예들을 인근의 네덜란드 항구에서 파는 것이 허용된다”(226).

이런 이중적인 식민지 정책으로 혁명은 처음부터 변질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낭만적인 혁명가는 괴물로 변해갔다. “유약한 인간은 살아갈 수 없는 거친 시대가 있는 법”(248)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말이다. 그렇기에 한 등장인물은 “아메리카에서 프랑스혁명이 한 모든 것은 싸마론들을 합법화시킨 것, 즉 16세기이래 끊임없이 산으로 도망치던 노예들을 합법화시킨 것”(276)이라고 냉소적으로 말했는지 모른다. “흑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다”(276)라고 하면서 말이다. 사실 흑인들은 프랑스 군대가 카리브해에 도착하기 전부터 식민지인들의 지배에 맞서 해방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프랑스 의회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선언하기 1년 전에 이미 산토도밍고의 손토낙스는 노예해방을 선언하였고, 아이티에선 스페인을 몰아내려고 투쟁하였다. 과달루페에선 영국인들을 쫓아내기 위해 투쟁하였고, 가이아나에선 부유한 지주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영국이나 네덜란드와 동맹을 맺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276). 이렇듯 식민지의 민중들은 스스로 해방투쟁을 전개하고 있었지만 단두대를 동반한 프랑스의 폭력적인 혁명수출이 이 모든 과정을 왜곡시켜 버린 것이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유럽적 규범과 가치가 아메리카의 현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전근대와 근대가 혼종되어 있는 독특한 대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을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오류들은 20세기에도 수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세기 내내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문제에 직접적이고도 공개적인 간섭 정책을 유지했다. 쿠바, 니카라과, 파나마, 칠레, 과테말라, 살바도르, 그라나다에 이르는 일련의 간섭정책은, 노골적인 전쟁에서부터 쿠데타 기획 및 지원, 암살기도, 경제봉쇄 및 반군에 대한 지원에 이르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행되고 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키어난(V.G. Kiernan)의 언급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

은 모든 인류가 원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하기”(에드워드 사이드 2001, 492, 재인용) 때문이다. 카르펜티에르는 지배자의 이러한 선민의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아메리카 대륙의 정체성을 즐기치게 추구해 온 것이다. 하지만 전작들에서 보이는 대립과 차이를 극복하고, 아메리카는 혼종의 대륙이며, 모든 것이 공존·공생하는 대륙이라고 인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혼종성에 대한 인식은 역사의 발전을 믿는 낙관적 전망을 획득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에스테반은 이 섬들에서 다양한 본질들이 함께 섞여있는 사물들의 모호함을 해석해내기 위해서는 합성어와 언어적 혼합어 그리고 메타포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경이로움을 느꼈다(213).

역사는 단순히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함과 동시에 발전하는 것이며, 지금의 내 모습 속에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역사가 함께 살아 숨쉬는 낙관적 전망을 획득했기에, 에스테반과 소피아는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이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 순간 소피아가 창문에서 떨어졌다. “우리, 저리로 가자!” 소피아가 무기결이에서 검과 비수를 끌어내리며 외쳤다. 에스테반은 그녀를 말리려 했다. “바보처럼 굴지마. 닥치는 대로 싸대고 있잖아. 이 낡은 무기로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그럼 넌 여기 있어, 난 갈테야!” “누구를 위해서 싸울 건데?”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싸울 거야.” 소피아가 소리쳤다. “뭘가를 해야만 해!” “뭘라고?” “뭘가를 해야만 한다고!”(415)

#### IV. 결론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를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탈식민주의든 식민주의든 그 출발점은 지배와 종속의 불평등한 패러다임을 지닌 식민주의이다. 탈식민주의는 식민주의의 유산을 청

산하려는 저항의 몸짓이며, 신식민주의는 식민주의를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려는 의도이다. 탈식민주의는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가 함께 맞물려 진행될 때, 즉 더 이상 서구와 비서구간의 집요했던 힘의 불균형이 시정되어 평등한 대화관계가 성립될 때에만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다른 사회와 다른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제국주의적 세계화 시대엔 여전히 유효한 담론이다.

우리는 지금 식민주의와 동시에 그에 저항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서구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단지 통치자-지배자로서 뿐만 아니라 폭력의 범죄, 억압의 범죄, 양심의 범죄로 비난받는 문화의 대표자들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특별함과 박애주의와 기회의 장점을 주장”하는 제국주의 담론의 영향력은 너무 막강하다. 하지만 미국의 “위대성”과 인종적 우월감,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대성에 대한 집착은 군대를 사용해서라도 머나먼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국의 이익을 지켜야 된다는 강대국의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단지 해외 지역에서의 미국의 이익 추구는 자유를 위해 싸운다거나 선행하는 것으로 위장되어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을 모호하게 할 뿐인 것이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테러리즘과 바바리즘이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는 카리브해 지역의 역사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원시적’ 사회에서 살인과 반란과 끝없는 불안을 만들어 낸 것은, 토착민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교육시켜 서구의 ‘문명’에 동참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서구인들의 잘못된 믿음과 순진한 열정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카리브해 지역에서 언급했던 담론들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중 정체성 담론과 마술적 리얼리즘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실 토착민들의 생활 터전이 폐허로 변한 뒤, 그 위에 세워진 이민 사회로서 카리브해의 정체성이란 단일하거나 통일된 것일 순 없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전 세계 그 어느 문화도 단일하거나 순수할 수는 없다. 모든 문화는 혼혈이며, 다양하고, 놀랄 만큼 변별적이며, 다층적이다. 또한 “정체성”은

본체론적으로 주어지거나 영원히 결정된 불변적인 것이 아니다. 세계 그 어느 문화도 독특하거나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하고 완벽한 특성으로 인해 특권적 지위를 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문화란 본질적으로 상호간에 주고받는 영향의 관계인 것이다. 이러한 때 서구문화와 원시문화의 대립구도로 시작되어 혼종성의 인정으로 발전한 카르펜티에르의 작품들이 갖는 문화적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 Abstract

Es la segunda época de la revolución caribeña entre 1940 y 1960. Durante este tiempo los autores intentan establecer sus propios discursos sobre la identidad caribeña al rechazar los discursos europeos tradicionales. Dentro de estas corrientes, Carpentier es el autor más notable por sus novelas y artículos. En su muy famoso artículo “Lo barroco y lo real maravilloso”, considera la cultura caribeña como una cultura muy activa y creativa por el amalgamamiento de los europeos, los africanos, y los indígenas. Pero este punto de vista heterogéneo se presenta gradualmente desde *El reino de este mundo* hasta *El siglo de las luces*. Por ello, en este artículo hemos considerado las obras representativas carpenterianas desde *El reino de este mundo* hasta *El siglo de las luces* para mostrar el proceso de la transformación de las ideas sobre América Latina.

El presente artículo consta de cuatro capítulos. En el primero y último capítulos tratamos la introducción y la conclusión. En el segundo trabajamos el proceso de la formación histórica de los discursos de la identidad y el realismo mágico como su expresión literaria. En el tercero, investigamos en las obras de Carpentier como el ejemplo más notable de esta corriente. En *El reino de este mundo* y *Los pasos*

*perdidos* Carpentier representa la idea de que las culturas africanas o indígenas son mejores a las europeas. Pero en *El siglo de las luces*, Carpentier nos muestra una idea más acabada de que la cultura latinoamericana es una amalgama creativa de las varias culturas y la encarnación total del espíritu barroco. Esta diferencia en el punto de vista se basa en la visión perspectiva de la historia. Antes de la Revolución Cubana Carpentier tenía una visión muy pesimista, pero la victoria revolucionaria lo lleva a un cambio significativo. Gracias a la victoria de la Revolución Cubana su visión de la historia se perfecciona totalmente. Según él, la historia es circular pero con una dirección hacia el progreso.

Key Words: Carpentier, Discurso de la identidad, Cultura heterogénea, / 카르펜티에르, 정체성 담론, 혼종문화

논문투고일자: 2004. 04. 20

심사완료일자: 2004. 05. 07

게재확정일자: 2004. 05. 17

참고문헌

- 로아 파킨슨 사모라/웬디 B. 패리스(eds.)(2001), 『마술적 사실주의』, (박병규 외 공역), 한국문화사.
- 송상기(2001), 「알레호 카르펜티에르: 경이로운 현실에서 바로크로」, in 김창민 편, 『라틴아메리카의 문학과 사회』, 까치, pp. 77-93.
- 애머릴 채너디(2001),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상상력의 영토화: 자아긍정과 메트로폴리스 패러다임에 대한 저항」, in 로아 파킨슨 사모라/웬디 B. 패리스(eds.), 『마술적 사실주의』, (박병규 외 공역), 한국문화사, pp. 97-121.
- 에드워드 사이드(2001), 『문화와 제국주의』, (김성근·정정호 역), 창.
- 프란츠 파농(1998),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이석호 역), 인간사랑.
- 호메로스(1998), 『오디세이아』, (강영길 역), 홍신문화사.
- 호미 바바(2002), 『문화의 위치』, (나병철 역), 소명출판.
- H. E. 데이비스(1996), 『라틴아메리카 철학』, (임규정 외 공역), 지성의 샘.
- Argumedo, Alcira(2001), *Los silencios y las voces en América Latina*, Bs.As.: Pensamiento Nacional.
- Carpentier, Alejo(1990), *Ensayos*, México: Siglo XXI.
- \_\_\_\_\_ (1991), *El reino de este mundo*(1949), México: Siglo XXI.
- \_\_\_\_\_ (1993), *El siglo de las luces*(1962), La Habana: UNION.
- \_\_\_\_\_ (2003), *Los pasos perdidos*(1953), Madrid: Alianza.
- Cerutti Guldberg, Horacio(1991), *La utopía en América*, México: UNAM.
- Chao, Ramón(1984), *Palabras en el tiempo de Alejo Carpentier*, Barcelona: Argos Vergara.
- De Toro, Alfonso(ed.)(1997), *Postmodernidad y Postcolonialidad*, Madrid: Iberoamericana.

- Dieterich Steffan, Heinz(1991), *1492-1992 La interminable conquista: emancipación e identidad de América Latina*, Bogotá: El Buho.
- Diez, Dominica(1977), *Alejo Carpentier*, La Habana: Casa de las Américas.
- Gutiérrez Arias, Eduardo(1991), *Encuentro de dos mundos*, Colombia: Comunitario del Huila.
- Matamoro, Blas(1993), “Alejo Carpentier o la sangrienta primavera de la historia”, in Leonor Fleming et al., *La crítica literaria española frente a la literatura latinoamericana*, México: UNAM, pp. 51-62.
- Padura Fuentes, Leonardo(2002), *Un camino de medio siglo: Alejo Carpentier y la narrativa de lo real maravilloso*, México: F.C.E.
- Peña Gutiérrez, Isaías(1989), “Carpentier y García Márquez. Génesis, fundación y apocalipsis en *Los pasos perdidos* y *Cien años de soledad*”, in Luis C. Adames Santos(ed.), *Ensayos sobre literatura colombiana y latinoamericana*, Bogotá: Banco Popular, pp. 63-77.
- Subercaseaux, Bernardo(1977), “El reino de la desalienación”, in Dominica Diez(ed.), *Alejo Carpentier*, La Habana: Casa de las Américas, pp. 323-332.